

푸본현대생명 '맥스(MAX) 미리 받는 종신보험' 출시

푸본현대생명(대표 이재원)은 사망 보험금 일부를 미리 받아 중증 질환 치료비와 생활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'맥스(MAX) 미리 받는 종신보험'을 출시했다.

이 보험은 평생 사망 보장 상품이다. 또 가입할 때 선택한 유형에 따라 6대 성인병 또는 암(유방암, 남녀 생식기 관련암, 기타 피부암,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제외) 진단 시 보험 가입금액의 80%를 선지급받는 게 특징이다.

선택 특약으로 질병 및 사고 치료, 수술, 입원비 등 필요한 보장을 추가할 수 있다. 고객 니즈에 따라 '6대 성인병 보장형'과 '암 보장형' 중 선택해 가입할 수도 있다.

의무부가 특약에 가입하면 중대 수술, 희귀성 난치 질환, 중대한 화상에 대해서도 각각 최초 1회에 한해 수술자금 또는 진단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. 유방암 및 남녀 생식기 암으로 진단 확정해도 최초 1회에 한해 진단자금을 보장받는다.

이 보험은 해지 환급금 지급 유형에 따라 실속 50% 형과 표준형으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.

실속 50% 형은 해지 환급금 일부 지급형 상품이다. 보험료 납입 기간 중 진단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전에 해지하면 표준형 대비 해지 환급금이 50% 적지만 표준형에 비해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.

보험 기간은 종신이며, 보험료 납입기간은 최소 5년부터 최대 30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. 일시납은 표준형 가입 시에만 가능하다. 가입 나이는 만 15세부터 만 60세까지이다.

35세 남자가 보험가입금액 1억 원, 보험료 납입 기간을 20년으로 해 6대 성인병 보장형과 표준형으로 가입하면 월 보험료가 31만3천 원이다. 동일한 가입자가 6대 성인병 보장형과 실속 50% 형으로 가입하면 월 보험료가 28만6천 원이다.

피보험자가 50% 이상 장애 진단을 받거나 진단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가 납입 면제된다.

6대 성인병 보장형으로 가입 시 중대 수술, 희귀 난치성 질환 진단,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진단 시에도 차회 이후 보험료가 납입 면제된다.

푸본현대생명 관계자는 "성인병, 암 진단 시 사망 보험금을 선지급받아 치료비로 사용하고, 선택 특약으로 필요한 보장을 하도록 다양화했다"며 "평생 사망 보장은 물론 살아있는 동안 중증 질환 치료비 보장이 가능한 종신보험"이라고 말했다. ●

중증질환 보장과 사망 보장을 동시에!

MAX 미리받는 종신보험

무배당/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(2204)



보험가입금액의
80% 선지급*
(최초 1회만)



평생
사망보장



특약으로
중증질환 보장



*푸본현대생명(보험료 납입금 상환금 제외)을 기한으로 지급할 권리가 상실된 후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*선지급(사망)은 계약일(보험료 납입)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. *유방암, 남녀 생식기 관련암, 기타 피부암, 갑상선암, 대장점막내암, 경계성종양 또는 재발종양은 소액실령으로 소액실령보장특약에서 별도 보장합니다. -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
삶을 변화시키는 긍정에너지!